

## 電子業界 求心体로서

### 問題点 解決의 産室이길

그 동안 國內 電子業界의 發展에 많은 寄與를 해 온 韓國電子工業振興會가 이번에 「電子振興」誌를 創刊하게 된 데 대하여 國內 電子業界의 關係者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70年代에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은 括目할 만한 成長을 하였읍니다만 아직도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 關係當국의 支援의 限界性으로 急進하는 世界電子工業의 趨勢에 부응치 못하여 왔읍니다. 그러므로 이번 「電子振興」誌의 창간이 '80年代 電子工業의 向方을 제시하는 里程碑가 되었으면 합니다.

'70年代의 韓國經濟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高度成長을 이룩하여 왔으며, 電子工業이 全産業에 차지하는 比重도 급격히 增大되어 '70年代初에 總製造業生産 중 2%에서 '70年代末에는 8%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伸張率의 面에 있어서도 總製造業 伸張率에 약 2배인 50%의 伸張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急伸張도 現在의 狀態로는 어떤 轉換點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작년에 겪은 바와 같이 '80年代에는 持續하기 힘들리라고 봅니다.

'80年度는 참으로 어려운 해이자 電子工業의 宿願이 이루어진 한해였읍니다.

제2의 石油波動으로 인한 世界經濟의 全般적인 沈滯, 國內 景氣予告指標의 바닥권 持續으로 나타난 國內經濟의 마이너스 成長, 높은 Inflation 등 暖氣流의 한해였읍니다.

그러나 電子工業의 오랜 宿願이었던 컬러TV

의 市販許容과 放映開始로 앞으로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成長에 대한 새로운 期待와 希望을 가질 수 있었던 한해이기도 했읍니다.

事實 컬러TV의 市販 및 放映은 電子業界에 새로운 轉期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波及效果 面에서도 國內經濟에 活力을 불어 넣었다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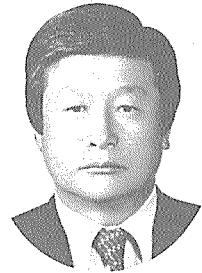
그러나 컬러TV가 電子業界에 活力을 불어 넣었다고는 하지만 '70年代와 같이 어느 한 特定製品에 의존하여 成長을 期待하던 戰略樹立의 態度는 이제 80年代에는 많은 危險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電子産業의 技術開發 및 海外市場에의 戰略樹立에 國內의 모든 電子關聯産業 및 學界가 모두 參與할 求心体가 요구되며 「電子振興」誌의 創刊은 그 誕生의 기쁨을 나누기에 앞서 賦課되는 막중한 責任感을 먼저 느껴야 할 것입니다.

國內의 電子工業은 참으로 많은 問題點을 안은 채 그 解決을 뒤로 미루면서 成長해 왔읍니다.

輸出構造의 취약, 生産 및 流通體制의 未改善, 技術習得의 지연, 生産性 向上의 停滯, 政策當局의 支援限界 등 本人도 항상 그 解決의 責任感을 느끼고 있는 점이 무수히 많읍니다. 이 많은 문제점들의 解決을 「電子振興」誌에 성급히 期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電子業界에 同參하는 國內産業, 學界 및 政策當局의 求心体가 되어서 問題點을 하나 하



株式會社 金星社  
代表理事 許 愼 九

나씩 들춰내고 分析하며 解決하는 解答의 産室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先進各國의 電子業界 技術水準은 이미 상당한水準에 도달해 있으며 業界, 學界 및 政府의 協助도 緊密합니다.

日本에서는 新技術의 研究開發에 業界와 學界의 優秀한 頭腦들이 한자리에 모여 政府의 支援을 받아 個別的인 利害關係를 떠나 研究에 着手·完成하여 美國의 電子業界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研究·實驗이 先導的이었던 만큼 또한 많은 애로가 있었읍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開發된 技術을 배워나가는 入場이므로 問題解決과 技術開發이 先進諸國보다는 상당히 쉬울 것입니다. 다만 學界·業界·政府가 同參同調하는 자세가 결여되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各界의 자세를 「振興」이라는 語意에서 받는 것과 같이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자세로 고쳐나가야 하겠으며 이것은 또한 振興會의 「電子振興」誌 創刊의 모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電子振興」誌의 編輯方向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의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技術情報의 傳達에 最優先을 두어 달라는 것입니다. 先進技術의 動向을 소개하는 것은 가장 初步的인 일이 될 것이지만 正確하고, 迅速하게 전달되지 못할 때에는 技術習得이나 蓄

☆ ☆ ☆ ☆ ☆

積은 不可能해지고 새로운 技術의 開發은 항상 뒤지게 될 것입니다.

技術集約産業으로의 構造轉換이 必然的이고 當面課題인 만큼 이를 解決하는 道具의 하나로써 그 役割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海外市場 情報 傳達의 媒体로서 그 比重을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技術開發은 製品市場이 존재해야만 그 빛을 발할 수 있으며 海外進出은 단순한 輸出増大의 의미를 넘어서 技術開發의 基盤을 強化하는 役割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參與의 幅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業界 全体를 代辯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또한 業界 스스로가 參與하는 姿勢를 갖도록 誘導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學界나 政策當局에도 參與의 機會를 제공함으로써 機關誌 내지 代辯誌의 役割을 넘어서 產學協同과 政策調整의 場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어려운 課題인 줄 알지만 過慾과 두려움에 사로 잡혀서는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調和될 때, 그리고 관련되는 内外의 모든 사람들이 積極적이 될 때에 우리 電子業界의 發展과 「電子振興」誌의 발전은 步調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電子振興」誌의 無窮한 發展과 편집인사 諸位의 건투를 빕니다.

☆ ☆ ☆ ☆ ☆